

2019년판 중소기업백서

- 2019년판 중소기업 백서는 사업승계와 창업촉진을 최대 중요과제로 설정
 - 인구감소와 저출산·고령화를 고려한 사업승계를 최대과제로 설정, 경영자의 조기 결단이 중요하다고 제언
 - 창업의 촉진에 더하여 신진대사를 도모하기 위해, 성장지향 창업에 초점을 맞추고, 창업의 담당자로서 부업이나 프리랜서를 지목했는데, 이는 리스크가 낮은 창업수단으로 부업을 활용할 수 있게 함
- 또 이번 백서는 IT활용이 지연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하여, IoT나 인공지능을 중심축으로 한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, 방재·감재 대책을 테마로 다루어 재해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충분한 대비를 지적하고 경영자의 의식개혁 필요성을 지적함
 - 또 생산성향상과 일손부족 대책으로서 IT활용이나 방재·감재 대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

1. 백서의 주요 내용

- 2019년 4월 26일에 발표된 2019년판 중소기업백서에서는 레이와(令和) 시대를 맞이할 때 경영자의 원활한 세대교체 및 경제·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자기변혁 추진 등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

제 1부 2018년도 중소기업 동향

중소기업 동향

- 일본경제는 완만한 회복기조에 있고,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이익이 2017년에 이어 과거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, 개선경향에 있는 중소기업의 동향 등을 분석

중소기업의 구조분석

- 중소기업의 기업 수 증감이나, 이에 따른 종업원수 및 부가가치 변화를 분석

- 현재 4년간 존속하고 있는 기업이 부가가치를 늘림으로써, 폐업한 기업에 의한 감소분을 상회, 전체로 보면 성장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

□ 재무 데이터로 본 중소기업의 실태

- CRD(Credit Risk Database)협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, 중소기업의 흑자/적자 및 자산초과/채무초과의 경과년수 변화, 실적의 편차 확대 등을 제시하고 또한 설비투자가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과 인과관계를 제시

□ 일손부족 상황

- 중소기업의 일손부족 상황을 종업원과부족 DI(경기확산지수)나 유효구인배율 등으로부터 개관, 대기업과 비교하여 노동생산성이 상승하고 있지 않은 점, 임금 및 휴가 등의 대우 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제시,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재료를 제공

□ 개폐업 상황

- 개폐업의 국제비교, 업종별, 도도부현별 상황을 제시

제 2부 경영자의 세대교체

□ 경영자원의 계승

- 사업계승이나 폐업에 따른 경영자원의 계승에 관하여, 특히 은퇴하는 경영자에 착안하여 분석
 - 구체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사업계승이 기업의 실적에 플러스영향을 미치는 점, 사업계승이나 경영자원 계승을 위해서는 신속한 준비가 필요한 점 등을 밝힘

□ 차세대 경영자의 활약

- 창업이나 사업계승에 의해, 새로이 경영자가 된 기업인에 착안하여 분석
 - 구체적으로는 경영자원을 계승하는데 있어서 창업이나 사업계승시 과제 및 대응, 매출액의 성장과 고용의 확대를 지향하는 기업의 경향 등에 관하여 제시

□ 친족 내 승계에 대한 지원조치 대폭 진전, 친족외 승계에 의해 신사업 전개도 기대

- 이제까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을 제로로 하는 사업승계세제를 조치, 친족 내 승계에 대한 지원조치는 대폭 진전되었음

- 앞으로는 친족 외 승계도 가일층 추진하는 것이 중요. 구 경영자 부담이 경감되는 외에, 친경영자에 의한 새로운 사업전개도 기대됨
- 폐업 시 경영자원을 승계하는 것은 구 경영자·기업가 쌍방에 유익함
-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경우에도, 경영자원의 일부를 유상으로 양도하면, 경영자는 폐업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음
- 사업을 신속하게 발족하려는 경우, 타인으로부터 경영자원을 승계하는 형태로의 창업은 유효하나 실제로 승계한 자는 한정적임
- 비교적 간단히 창업할 수 있는 프리랜서·부업에 의한 창업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
- 클라우드 등 IT기술의 발전 및 노동방식 개혁의 진전에 따라 프리랜서나 부업 등 창업의 저변이 확대되는 등, 개인이 비교적 간단히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
- 우선은 프리랜서·부업으로 창업, 그 후 사업을 확대하는 사례도 존재. 창업의 한 형태로서 프리랜서·부업에 의한 창업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
- 여기서 창업이라 함은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, 고용점포 없이, 기술기능의 제공으로 성립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, 부업이라 함은 고용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함

제 3부 중소기업·소규모기업경영자에 기대되는 자기변혁

- 구조변화에 대응
- 인구감소, 디지털화, 글로벌화 등 경제·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 및 소규모기업의 경영자가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가, 또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재구축해야 할 것인가, 데이터나 사례를 이용하여 힌트를 제시
- 디지털화 사회에서는 IoT·AI를 활용한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
- 디지털화가 진전되는 사회에서는 중소기업으로서도 IoT·AI를 활용하는 것이 유익함
- 데이터를 활용하여, 업무효율화나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대응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

-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매력적인 제휴상대, 연구개발 촉진도 중요
 - 고객의 니즈 다양화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자사만으로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오픈이노베이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
 - 상황 변화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도 연구개발의 제휴상대로서 기대되고 있음. 대기업의 제휴를 포함,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

- 지방의 중소기업이야말로, 역외·해외수요의 확보가 필요하며, 많은 지역에서 가능
 -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입지한 사업자일수록 생산성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지방에서는 역외수요를 확보하는가가 과제
 - 방일 외국인이 급증하는 가운데, 외국인들의 니즈에 부응한 상품·서비스를 제공, 해외수요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에서도 높은 성장을 실현할 수 있음

- 방재·감재 대책
 - 근년 다발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중소기업의 피해나 복구상황을 분석, 재해에 관한 리스크 파악 및 손해보험 가입을 포함한 사전대책이나 실시과제 등에 관하여 제시

- 방재·감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, 관계자들도 보급계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 - 방재·감재 대책을 실시한 기업일수록 단기간에 매출액을 회복
 - 한편,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방재·방재 대책이 반드시 충분한 것은 아님
 - 무엇보다 시작하면 좋은가 알지 못하는 사업자가 많음. 대기업 등의 관계자 협력을 얻어 보급계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
- 리스크에 부합한 재해보험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 - 많은 중소기업들은 손해보험이나 화재공제에 가입
 - 한편, 수재에 대응하지 않은 보험이나, 일부 밖에 보상받지 않은 보험가입이 절반 이상
 - 리스크에 부합한 커버울의 보험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
2. 평가 및 시사점

- 2019년 일본의 중소기업백서가 시사하는 2가지 키워드로 사업지속성계획(BCP: Business Continuity Planning)의 일환으로서 사업승계와 방재·감재 대책을 들 수 있음
 - 전자와 관련해서는,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들은 경영자의 고령화나 폐업, 일손부족 등의 과제에 직면하는 만큼, 이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이 중단되는 경우 기술이 원활히 전승되지 않고 서플라이체인도 붕괴될 수 있는 등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큼
 - 또 사원이나 M&A에 의한 친족 외 사업승계에 초점을 맞추고 조기에 사업승계를 할 수 있게 함은 후계자 난에 직면한 후계자 육성에도 장점이 있음
 - 후자와 관련해서는, 지진을 비롯하여 태풍, 호우 등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에서는 특히 이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매우 중요함
 - 일본의 경우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시 자연재해로 인한 BCP문제가 크게 주목 된 것은 잘 아는 사실임
- 따라서 사업지속책의 일환으로서 사업승계, 방재·감재 대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

<참고자료>

일본 중소기업청 『2019년판 중소기업백서』

https://www.chusho.meti.go.jp/pamflet/hakusyo/2019/PDF/chusho/02Hakusyo_mokuji_hanrei_web.pdf

[참고] 2019년판 중소기업백서 목차

제1부 2018년도 중소기업동향

제1장 중소기업 동향

- 제1절 일본경제 동향
- 제2절 중소기업 현황
- 제3절 소결

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분석

- 제1절 기업수의 변화
- 제2절 개폐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
- 제3절 소결

제3장 재무데이터로 본 중소기업 실태

- 제1절 재무면에서 본 중소기업의 다양성
- 제2절 시계열로 본 재무상황 추이

- 제3절 설비투자가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
- 제4절 소결

제4장 일손부족 상황

- 제1절 심각화하는 일손부족 상황
- 제2절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현황
- 제3절 기업을 둘러싼 노동환경
- 제4절 새로운 고용의 담당자
- 제5절 소결

제5장 개폐업 상황

- 제1절 개폐업 동향
- 제2절 소결

제2부 경영자의 세대교체

제1장 경영자원의 승계

- 제1절 경영자 은퇴 개관
- 제2절 사업승계
- 제3절 폐업과 이에 따른 경영자원의 승계
- 제4절 경영자 은퇴 실태
- 제5절 소결

제2장 차세대 경영자의 활약

- 제1절 경영자 참여 개관
- 제2절 경영자참여에 이르기까지 과제
- 제3절 창업후 성장한 창업가의 실태
- 제4절 소결

제3부 중소기업·소규모기업 경영자에 기대되는 자기변혁

제1장 구조변화에 대응

- 제1절 세 가지 경제사회구조 변화
- 제2절 사회구조변화와 중소기업에 기대되는 역할
- 제3절 소결

제2장 방재·감재 대책

-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자연재해의 영향
- 제2절 중소기업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상황
- 제3절 소결

2018년도에 강구된 중소기업시책

제1장 경영력 강화·생산성 향상

- 제1절 생산성향상·기술력 강화
- 제2절 IT화 촉진

제2장 사업승계·재편·통합에 의한 신진대사 촉진

- 제1절 사업승계 지원
- 제2절 인재·고용 대책

제3장 소규모사업자대책, 해외전개·지역으로의 인바운드 확대

- 제1절 소규모사업자의 지속적 발전 지원
- 제2절 중소기업의 해외전개 지원
- 제3절 기타 해외전개지원책
- 제4절 인바운드 수요확대지원, 지역자원 활용
- 제5절 기타 지역활성화 대책
- 제6절 경영개선 지원, 재생지원 강화

제4장 안정된 사업 환경 정비, 활력 있는 담당자 확대

- 제1절 거래조건 개선
- 제2절 관공수요 대책
- 제3절 소비세전가 대책
- 제4절 소비세경감세율 대책
- 제5절 자금유통 지원, 사업재생 지원

제6절 창업지원

- 제7절 경영안정대책, 재해대응력 강화
- 제8절 재무기반 강화
- 제9장 인권계발 추진
- 제10절 경영지원 체제 강화

제5장 재해복구·부흥

- 제1절 2018년도 발생한 재해복구·부흥지원
- 제2절 자금유통지원
- 제3절 이중채무문제 대책
- 제4절 공장 등의 복구지원
- 제5절 기타 대책

제6장 업종별·분야별 시책

- 제1절 중소농림수산물관련 기업대책
- 제2절 중소운수업 대책
- 제3절 중소 건설·부동산업 대책
- 제4절 생활위생 관련 영업대책

제7장 기타 중소기업시책

- 제1절 환경·에너지 대책
- 제2절 지적재산권 대책
- 제3절 표준화 촉진
- 제4절 조사·홍보 추진